

국산 생녹용, 한의원 공략 명분있다

문종환/한국양록협회 홍보부장

양록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산녹용이 한의사들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전세계 녹용생산량의 80%를 소비하는 우리의 현실로 보아 양록인들로 하여금 대단히 맥빠지게 했고 자존심이 팽상하도록 했다.

국산녹용이 한의사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첫째 이유는 수입산 녹용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데서 비롯되었다. 그 외의 이유로 품질과 사육환경을 들먹이고 있으나 한낱 구차한 변명에 불과했다. 모두가 국산녹용을 팔아봤자 한의사들 손에 쥐어지는 이득이 별로 없었기에 지어낸 그들만의 처신을 위한 보호막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일부 한의사에 국한되고 있지만 국산녹용에 대한 평가를 높이하고 있다. 양록인들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산녹용의 편협된 시각을 바꾸는데 노력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더 근본적인 배경은 녹용을 규격품으로 유통되도록 한 제도에 있다.

한의원에서도 규격화된 녹용만을 사용하도록 해 현실적으로 유통마진이 예전에 비해 크게 떨어져 국산녹용을 눈여겨 보고 있는 것이다. 협회에 국산녹용의 가격과 유통에 대해 문

의해 오는 한의사가는데서도 알 수 있으며, 한의원에 국산녹용을 유통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상담해 오는 중간 유통인의 전화가 상당수 걸려오는 것만 보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직접 양록농가를 방문하여 녹용구매를 상담하는 한의사들도 꽤 있다는 지방 양록인의 전갈은 대단히 용기를 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한의원이나 한약방 경영자들이 손수 사슴을 사육하여 녹용을 자급하고 있는 것도 더이상 한의사들로 하여금 국산녹용을 배척할 명분이 없도록 하는데 커다란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바로 양록업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대목이다.

개인적으로 몇몇 한의사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때 녹용에 대한 깊은 상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녹용을 생산하는 사슴의 품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녹용 수입업자들의 이야기가 여과없이 그대로 반영되어 러시아 중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사육되는 사슴이 무슨 품종인지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단지 러시아산 「원용」과 중국산 「깔깔이」가 좋은 녹용이고 뉴질랜드산 녹용은 그만 못하다는 것이 전부였다.

한의사들이 제일 좋다고 평가하는 러시아산

「원용」이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엘크에서 생산된 녹용과 같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원용」을 생산하는 별도의 품종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최근에 러시아에서 5만kg의 녹용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바 있는 업자를 만나 러시아 사슴사육의 현황을 「주마간산」격으로 파악한 바 있다. 그가 펼쳐 보이는 앨범속의 러시아 사슴은 분명 엘크이었으며 그곳에서는 「마랄」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슴방목 장면, 녹용 절각장면, 녹용건조 장면, 월동용 조사료 채취장면 등이 사진속에 있었다. 이 사진을 협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양록」에 소개해도 되겠느냐고 하자 한사코 거절했다. 러시아 사슴사육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허락이 되면 정리하여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슴사육은 대단위 방목으로 하고 있었는데 3천여두 규모의 농장이었다. 말을 타고 사슴을 몰며 절각때와 겨울철을 제외하곤 산에 풀어둔다는 것이다. 절각은 우리의 함정식과 비슷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 전혀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많은 사슴을 마취하여 절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 주 이유였다.

녹용건조는 별도로 건조장을 갖추고 녹용을 건조실에 차곡차곡 쌓아 열건조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산에 방목을 하는데 월동용 조사료는 사료포를 조성하여 충당한다고 들려 주었다. 재배되는 초종(草種)이 무엇인지 물었으나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 초종을 알수만 있다면 우리가 눈여겨 보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사슴을 가두는 사육장은 우리가 철망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통나무를 이용하고 있었다.

러시아 사슴사육 실태를 설명하는것은 한의사들이 높게 평가하는 「원용」의 현실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중국의 사슴사육 실태도 어느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듯이 「갈갈이」를 생산하는 사슴도 일종의 엘크계통으로 「마록」으로 불리운다. 체구는 우리의 엘크와 러시아의 마랄보다 작다. 레드디어와 비슷하다. 중국에서는 「갈갈이」를 매화록 녹용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의사들은 높게 평가해 주고 있다.

그리고 뉴질랜드산 녹용은 한의사들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아 언급을 생략한다.

이와같이 우리의 한의사들은 녹용을 생산하는 사슴의 품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전해져 온 이야기만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다.

한의사들이 그동안 양록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 또 하나는 생녹용(生鹿茸)에 대한 폄하였다. 건녹용이 좋고 생녹용은 좋지 않다고 드러내 놓고 이야기 했다. 한의사들이 한의학 분야에서는 앞서갈지 모르나 녹용에 대해서만큼은 무지했던 것이다.

녹용을 건조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부패방지를 위한 보관 및 유통의 편리성 때문이지 그 이하도 그 이상의 이유는 없다. 녹용을 약재로 사용하던 머나먼 옛시절에 냉동고가 없으니 없었다. 올 해 채취한 녹용을 이듬해 채취할때까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조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었다. 그런대도 국산 생녹용을 폄하했던 것은 모두가 값싼 수입산 녹용을 사용하기 위한 명분축적이었다.

이제 이러한 명분도 깨질날이 멀지 않았다. 국산 생녹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수입산 건녹용의 유통실태를 파헤치면 알 수 있다.

국내에 수입되는 녹용은 거의가 건녹용으로 유통되었다. 녹용을 건조시키는 방법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나 건조과정(열건조, 동결건조)에서 녹용 고유의 성분이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다. 나아가 수입산 녹용

은 건조된 전지상태로 국내 한의원에 유통되었는데 한약을 처방하여 소비자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는 절단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심상치 않다. 돌처럼 단단한 건조상태의 전지

녹용을 썰기 위해서는 필히 청주나 소주에 6시간 이상 담근다음 썰어야 했다. 그래야 단단한 녹용이 연하게 되어 썰기에 좋기 때문이다. 바로 술 속에 6시간 이상 담겨놓는 과정에서 또한번의 녹용성분이 우려나와 약효는 그만큼 반감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정 못미더우면 녹용을 담가 놓았던 술을 마셔보면 알 수 있으리라.

<표1> 수입녹용(반용주) 규격품 등급별 가격비교

포장 단위	규격	등급 (원산지)	표준공장도가 (원)
75 g	생규	상 (러시아, 원용)	150,000
		중 (러시아 원용)	118,750
		하 (러시아 원용)	68,750
		상 (중국, 매화)	106,250
		중 (중국, 매화)	93,750
		하 (중국, 매화)	52,500
		상 (중국, 갈갈이)	137,500
		중 (중국, 갈갈이)	81,250
		하 (중국, 갈갈이)	52,500
		상 (뉴질랜드)	68,750
중 (뉴질랜드)	50,000		
하 (뉴질랜드)	22,500		

(자료 : 보건복지부)

건조하는 과정과 써는 과정에서 두번씩이나 녹용 고유의 성분이 파괴된 수입산 녹용을 어떤 한의사가 국산 생녹용 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가. 양록농가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지탄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상으로 언급한 내용을 전부 무시하고라도 국산 생녹용으로 한의원을 공략할 대안이 있음을 최근에는 눈여겨 보게되었다. 가장 민감한 가격경쟁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음을 확인했다.

녹용이 규격품대상 한약재에 포함됨에따라 앞으로는 녹용도 등급별로 가격이 차별화되어 한의원에 유통된다. <표1> 참조.

<표2> 국산, 수입산 녹용 도·소매가격 비교표

(단위 : 원)

국 산 녹 용				수 입 산 녹 용			
산지및품종	기준량 (1냥)	도매가격	소매가격	산지및품종	기준량 (1냥)	도매가격	소매가격
한국엘크	37.5 g	50,000	75,000	러시아원용	37.5 g	56,250	150,000
한국교잡	37.5 g	-	-	중국갈갈이	37.5 g	45,208	130,000
한국꽃시슴	37.5 g	60,000	90,000	중국매화	37.5 g	42,083	120,000
한국레드	37.5 g	40,000	60,000	뉴질랜드레드	37.5 g	23,542	100,000
평 균	37.5 g	50,000	75,000	평 균	37.5 g	41,770	125,000

(자료 : 한국양록협회)

1. 기준 량 : 국산은 생녹용을 건용으로 환산, 수입산은 건녹용 1냥
2. 품질기준 : 국산은 전지 기준한 평균가격, 수입산은 상·중·하의 평균가격
3. 가격기준 : 국산 도매가격은 직판장 판매가격, 소매가격은 소비자 가격
수입 도매가격은 표준 공장도 가격, 소매가격은 소비자 가격

<표2>는 <표1>을 참고로 하여 협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국산녹용과 수입산 녹용과의 도·소매 가격을 비교한 것이다. 양록농가에서 한의원을 공략할 충분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동안 녹용으로 폭리(?)를 취해왔던 한의사들이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투명하게 가격이 명시됨에 따라 더이상 수입산 녹용에 매력을 잃어 갈 것으로 보인다. 규격품에는 원산지나 표기되어 있고 품질등급을 알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해 놓아 뉴질랜드산 녹용을 중국이나 러시아산 녹용이라고 속일수도 없다. 그래서 이를 간파한 한의사들이 국산녹용에 서서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관심을 보이는 한의사는 그런대로 현실감이 있는 사람이지만, 아직도 뭐가뭔지 모르고 수입산 녹용이 최고라고 외쳐대는 한의사는 머지않아 후회하리라.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산 「원용」상대가 75g (2냥)에 15만원, 중국산 「깔깔이」상대가 13만7천5백원, 러시아산 「원용」 중대가 11만8천7백50원, 중국산 「매화」상대가 10만6천2백50원으로 나타나 있다. 모두가 표준공장도 가격으로 10만원대를 웃돈다. 표준공장도 가격이 이러하데 한의원을 통해 소비자들한테 들어가는 가격은 어떨하겠는가.

바로 이 틈새를 국산 생녹용이 공략해야 한다.

현재 양록농가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생녹용가격은 1냥에 평균 3만원이다. 생녹용 5냥이 건녹용 2냥과 맞먹는 것으로 볼때 러시아산 「원용」상대가 15만원과 동일하다. 앞으로 우리 농가에서 생산성 향상을 기울인다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한의원에 공급할 수 있어 가격경쟁은 충분한 셈이다. 엘크의 경우는 지금당장 가격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농가가 많다. 국산 생녹용을 취급해도 한의사들에

게 돌아가는 마진이 높아지고 있어 한의원에서 국산 생녹용을 취급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농가가 준비해야 될 내용도 만만치 않다. 국산 생녹용을 찾는 한의원은 늘어나는데 반해 이를 공급해 줄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우리 양록인의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농가에서 사슴사육 환경을 청결히 하여 양질의 녹용을 생산해 내야 한다. 그다음 국산녹용도 자체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자체 규격화하여 공급해야 한다. 수입산 녹용은 시행하는데 국산녹용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뢰도 면에서 반감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기본적인 장치를 갖춘다음 국산녹용을 취급하는 조합이나 판매장은 관심있는 한의원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가들 역시 인근 한의원에 들려 국산 생녹용의 우월성과 가격경쟁의 우위를 설명하여 공급의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국산 생녹용이 한의원이나 한약방, 한약취급업소에서 꾸준히 환영받을때 양록농가와 계약사육을 통한 공급 체계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제 국산 생녹용도 그동안 철옹성으로 다가왔던 한의원을 공략할 충분한 명분이 있는 만큼 비전을 갖고 사슴 기르기에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때다.*

본회 직원 채용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10일자로 사무국 여직원을 채용했다.

이문옥 : 양백여상 졸업

(주) 녹산종합엔지니어링 근무